

중공의 강제생체장기적출 관련 최신 조사보고서 워싱턴D.C서 발표

[밍후이왕] 2016년 6월 22일,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와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 중국문제 전문가 겸 언론인 이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자신들 저작인 '대학살(The Slaughter)'과 '피 비린내 나는 생체장기적출(Bloody Harvest)' 관련 내용에 관한 심도 있는 새로운 조사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내에서 계통적이며 국가의 조직 하에 움직여 온 대규모적이고 산업화된 생체장기이식의 검은 내막을 폭로했다.

일주일전, 6월 13일, 미 하원은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국대륙에서 계통적이며 국가의 지지 하에 지속적으로 양심수(파룬궁수련자를 주체로 하며 기타 종교·소수민족 인사를 포함)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3명 조사관의 최신조사보고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던 다음날인 6월 23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최신 보고와 관련해 청문회를 소집했다. 뒤이어 캐나다 수도 오타와와 유럽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 및 청문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최신 조사보고서는 중국 내 수백 개 이식병원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2,300여 개 참고문헌을 인용해 약 24만 자로 작성됐다. 아울러 언론보도, 중국 당국의 선전자료, 의학간행물, 병원웹사이트와 대량의 삭제된 홈페이지 저장파일 등에서 소재를 취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런 병원들의 장기이식수술건수, 병상 회전율, 이식 전문 인원수, 기술 양성, 정책법규, 정부 지원항목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했다.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내 장기이식은 '수요에 따른 이식'의 특징을 구비했다. 현재 중국에서 자발적인 장기기증에 의한 기증 장기 수량은 극히 적다. 하지만 조사관의 발견



▲ 2016년 6월 22일, 중공의 생체 장기이식에 대한 최신조사보고서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발표됐다. 국제조사관은 대량의 양심수가 강제 장기적출 당해 지속적으로 살해당한다고 증언했다. 며칠 전인 6월 13일, 미 하원은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과 17년 동안 지속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정지할 것을 호소했다. 그림은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이자 조사관인 데이비드 킬고어.

에 의하면, 대량의 응급 이식사례 중에서는 오히려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찾을 수 있었고, 어떤 병원은 심지어 홍보 광고 중에서 '준비된 장기에 맞는 환자를 찾고 있다'라고 까지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식수술 과정에서 장기 배척현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여분의 장기를 준비하는 등 의사는 한 환자를 위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개의 장기를 얻을 수 있었다.

2006년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만행이 폭로된 후에도 중국의 장기이식 규모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바, 장기이식업계 배후의 발전추진 요인 및 중국공산당, 정부, 관리 개개인이 지속적으로 양심수를 모살해 이들의 장기를 판매하는 중에서도 말아 온 배역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중공 당국은 줄곧 매년 장기이식 수량이 약 1만 건에 달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몇 개 병원의 연간 이식 건수만 하더라도 이미 이 숫자를 초과한다. 그리고 2007년에 중국 위생부에 이식허가 신청을 낸 이식센터는 1천여 개에 달했다. 위생부가 규정한 장기이식센터의 최저수술 건수에 근거하면 이중 이식허가를 받은 146개 장기이식센터만 해도 2000년 이래 간장, 신장 이식수술 총 건수는 백만 건에 이른다. 이런 병원의 절대 다수가 그 이식수량이 모두 최저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때문에 전반 중국의 장기이식 총 수량은 그야말로 사람을 놀라게 한다.

이런 최신조사 결과는 중국의 장기이식업계 현황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킬 것이며, 아울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심수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의혹제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한 층 더 깊게 될 것이다.

최신조사보고서는 :
//endorganpillaging.org 에서 열람할 수 있다. (뒷면에 계속)

하나의 또렷하고 명확한 대열신호를 당신은 알아보았는가?

[밍후이왕]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근본지도로 사람더러 마음을 수련하고 선을 향하게 가르쳐 주는 불가수련 대법이다. 파룬궁에 대한 중상모략은 장쩌민이 1999년 10월 25일 프랑스 ‘르 피가로 신문’ 기자 회견 때 파룬궁은 X교라고 하고, 또 1999년 10월 27일, ‘인민일보’ 특별 논설위원이 ‘파룬궁은 X교다’라는 비방문장을 발표해서부터였다. 이는 인권망나니 장쩌민이 개인 권력을 남용해 중공의 ‘가짜, 악, 투쟁’의 독재 폭정 기구를 조정해 미친 듯이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중공의 일체 파룬궁에 관련된 공개 문건 중, 1999년 7월 22일 민정부 통고로부터公安부 통고, 또 전국인대 결정과 그 후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의 사법 해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룬궁은 X교라고 정하지 않았다. 2000년 중공公安부에서 발표한 ‘사고조직에 관한 검정과 단속 문제에 대한 약간의公安부 통지’(공통

자[2000]39호)중 “현재 이미 인정한 사고조직정황”에서 밝히기를 지금까지 명확히 검정한 사고조직은 모두 14개라고 했다. 이 14개 중에 파룬궁은 없다.

2014년 6월 2일, ‘법제 석간신문’에서 또 이 14개 사고를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전 세계에 파룬궁수련은 합법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중공 현직 집권자는 이런 방식으로 장쩌민의 파룬궁에 대한 중상모략을 공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파룬궁은 합법적이라는 당국의 태도를 표명했다. 이는 또 각급 공무원(특히 공검법인원)에게 또렷하고 명확한 대열신호를 전했다. 이 신호를 당신은 알아보았는가? ◇ (문/워이리라이)

연변박해소식

지린성 연변 텐차오링 림업국 퇴직직원 황자잉이 납치된 상세한 정황

5월 17일 점심, 63세인 파룬궁수련생 황자잉(黃家英)은 남편(수련하지 않음)과 함께 외지에서 온 수련하지 않는 동창을 집에서 접대하고 있었는데 텐차오링 림업국 국보대대 리사오웨이, 장연화, 위다이장, 왕위웨이 등이 집에 뛰어들어 불법으로 집을 수색했다. 장연화는 가족신을 신은 채 침대 위에서 마구 밟으면서 보따리와 궤를 뒤져 파룬따파 서적 ‘전법륜’과 몇 개 호신부를 뒤져내고는 황자잉을公安국으로 납치해 갔다. 수련하지 않는 남편까지도公安국으로 데려갔다가 후에 내놓았다. 황자잉은公安국 국보대대에 불법으로 24시간 넘게 감금당한 후 18일 오후 2시 후에 왕청 림업구치소에 이송되어 15일 동안 불법적인 박해를 당하다가 6월 3일에 풀려났다.

5월 17일 오전 10시경, 파룬궁수련생 가오렌잉(高連英)도 집에서公安국으로 납치됐다. 혈압이 210이고, 당뇨병(糖尿病)이 있어 신체불합격으로 구류되지는 않았어도 밤 10시 넘어서야 풀려났다. 집에 있던 컴퓨터를 강탈당했다.

“1400례” 거짓말을 간파하다

1999년 7월 20일, 중공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했다. 중공의 력차 정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번 박해 역시 천지를 뒤덮듯한 거짓말 선전이 앞서 인도하면서 중공 당매체는 이른바 “1400례”를 조작하여 파룬궁을 련마하는 사람들이 살인, 자살, 악을 먹지 못하게 하여 1400명이 련습하여 죽었다고 날조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여기에서 다만 한 가지 례를 들어보자 :

200원 취재 비용

중경(重慶) 영천(永川) 쌍석진(双石镇)의 룡강(龙刚)은 정신병이 발작하여 강에 뛰어들어 죽었다. 성이 두(杜)씨인 기자는 그의 아내를 취재할때 파룬궁을 모독하는 말을 종이에 적고 그녀더러 그대로 읽으라고 하면서그녀에게 2

백원을 주었다. 룡강의 부모는 밍후이왕에 보낸 편지에서: “아들은 확실히 정신병이 있으며 당시 정신병이 발작하여 강에 뛰어들어 사망했고 파룬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의 부모로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한 말을 해야 하며 량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앞면의 계속)

주: 외부 연계를 (할 때 인터넷 안전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인터넷 주소가 틀리지 않았는지 자세히 살펴본 후 다시 연결할 인터넷주소를 손으로 입력하기 바란다!

[배경소개]

1999년부터 2007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장기이식 시장은 급속히 발전했다. 2003년, 중국의 장기이식 건수가 갑자기 크게 배로 늘었다. 2003년부터 2006년간 국제적으로 중국에 가서 장기이식을 하는 열풍이 일어났다. 중국의 일부 병원의 장기를 대기하는

평균시간은 1~2 주일이었다. (외국은 2~3년) 몹시 짧은 대기 시간은 비상적인 장기출처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합국 특파전문요원 弗瑞德·诺瓦克 선생은 2000년~2005년은 파룬궁수련생이 중공의 박해를 가장 잔혹하게 받은 시기였고, 중국의 장기이식 수술이 급증한 단계였다고 밝혔다.

독립조사원이 환자의 신분으로 장기의 출처를 물었을 때 대륙병원에서는 알려주기를 “어떤 장기는 파룬궁수련생의 것이며, 그들은 신체단련을 하기 위해 신체가 아주 건강하여 보증 코 문제가 없다”고 했다. ◇